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교육분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례

01

바다에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다

• 서미희 송정서평학교 교장 ... 08

02

이름 없는 학교를 통해 희망의 씨앗을 나누다

• 송재한 이름 없는 학교 운영자 ... 17

03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 힘껏 점프하다

• 이의현 점프 대표 ... 29

04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지혜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다

• 오연주 제주의 소리 경영기획실 팀장 ... 39

05

음식의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다

• 김현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조리전공 교수 ... 51



06

꿈꾸는 슈퍼맨, 전 세계의 꿈을 응원하다

• 김상수 히어로스토리 대표 ... 63

07

영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다

• 선현우 Talk To Me In Korean 대표 ... 73

08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놀이터가 된다

• 이승택 놀공발전소 대표 ... 85

09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즐거움을 그리다

• 최민준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대표 ... 97

교육분야



01

대한민국 최초 여성 서퍼

바다에서 현재를 살고 미래를 꿈꾸다



송정서핑학교 교장

서미희

- **누구의 이야기?**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윈드서핑 및 서핑 선수로 활약하다가 현재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핑 역사의 산증인

- **하는 일은?** 우리나라 최초 서핑 교육기관인 송정서핑학교를 운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중고등학교 시절 5년 동안 펜싱을 배움 → 체육대학을 포기하고 간호학원에 다님 → 병원에서 근무 → 스물세 살 때부터 윈드서핑 시작 → 7년 동안 병원 근무와 윈드서핑을 병행하다가 송정에 숨을 차림 → 서른두 살 때부터 3년간 서핑 독학 → 이후 3년 동안 서핑 선수로 활동 → 서핑 선수 은퇴 →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한 송정서핑학교 운영 중

- **장래 포부** 서핑이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서핑 선수로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사랑, 열정, 간절함이 하나로 뭉치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마법이 일어난다.

- **더 알고 싶다면** 송정서핑학교 홈페이지 <http://www.surfschool.co.kr/>

서미희

송정서핑학교 교장



부산에는 1999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핑 교육을 시작한 이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송정서핑학교’가 있다. 송정서핑학교의 교장선생님인 서미희 씨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서퍼로 유명하다. 윈드서핑으로 부산 송정 바다에 발을 들여놓은 지 올해로 20년째에 접어든 그녀는 타고난 운동 실력과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된 사람이다.

윈드서핑으로 7년, 이후 서핑으로 다시 6년을 보내며 그녀는 길지 않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은퇴 후 그녀는 그동안 운영하던 교육장을 본격적으로 서핑학교로 만들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재 양성 외에도 송정 바다에 바다 학교를 만들고, 1년 365일을 바다에서 지내며 위기에 처

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을 양성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늘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서미희 씨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활동적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자연 속에서 보냈어요.

어린 시절 미희 씨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싸놓으신 도시락을 들고 곧장 아버지를 따라나섰다. 여름이면 강과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겨울이면 산에서 사냥을 하며 그녀는 사계절 내내 자연에서 뛰놀며 자랐다. 아버지는 그녀가 딸임에도 엄살 부리지 않고 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셨고, 그 덕분에 그녀는 동네에서 ‘보리밭 선머슴’으로 통하기도 했다. 그렇게 매일을 산으로 바다로 신나게 놀러 다니던 그녀는 중학생이 되고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놀고 싶지가 않아졌다. 그녀가 꿈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 못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세계 1인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를 눈여겨보시던 선생님의 제안으로 펜싱을 배우게 되었죠. 멋있기도 하고, 제 길을 찾는 것 같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녀는 5년 동안이나 해온 펜싱을 그만두어야 했다.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시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체육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녀는 펜싱과 자신의 앞날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했다. 열심히 해왔음에도 왠지 그녀는 펜싱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간호학원에 들어갔다.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스물두 살 때 간호사로 병원에 취직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고, 봉사하는 일이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우연히 올림픽을 보다가 윈드서핑* 경기를 보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버렸죠. 운동하던 친구의 소개로 광안리에 있는 윈드서핑 습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취미로 윈드서핑을 시작했어요.”

윈드서핑을 하던 제가 갑자기 서핑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다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희 씨는 윈드서핑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습을 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간호사 생활을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윈드서핑 습을 열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윈드서핑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바람이 좋다는 ‘송정’ 바다를 추천받았다.

* windsurfing 일정한 판 위에 돛대를 세우고 바람을 받으며 파도를 타는 스포츠로, 돛대를 수직으로 고정시킨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연결쇠를 사용하여 돛대를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송정으로 가봤더니 마음에 꼭 들더라고
요. 송정은 어릴 때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와 수영도 하고, 수
박도 먹고, 물고기도 잡았던 곳이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어 송
정에 대한 첫인상이 무척이나 좋았죠.”

그녀는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기와집을 수리해서 솥을 열었고, 나중
에 해운대구청에서 옆에 땅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본격적으로
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 정도 솥을 운영하던 그녀는 파도
가 너무 일어서 윈드서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녀가 서핑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그때부터였다.

“한 외국인이 서핑보드를 타고 파도를 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를 2박 3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바다의
수심이 깊지 않아서 상급자들이 아닌 서핑을 좋아하는 일반 동호인들
에게는 모래로 이루어진 야트막한 파도가 최고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할 일을
찾은 기분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서른둘이었어요.”

윈드서핑 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서핑*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더구나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면
서도 송정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는 그녀를 윈드서퍼 동료들은 이해하
지 못했다.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3년 만에 완벽하게 서핑 기술을 터득
하고 안정적으로 파도를 타는 모습을 그녀가 보이고 나서야 동료들은

* surfing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이용하여 관자를 타고 파도 속을 빠져나가면서 묘
기를 부리는 스포츠.

송정 바다에서도 서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금은 그녀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바람이 없고 파도가 있는 날이면 동료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그녀를 찾아온다고 했다.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 잘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 열정, 간절함이 하나로 뭉치면 원하는 대로 이뤄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TV를 보면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달인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나오는데, 윈드서핑까지 30년을 한 저는 아직 달인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서핑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죠.”

서핑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어요.

“서핑은 그 자체로 운동이자 파도와 의 놀이예요. 물 위에 떠 있으면 그저 자유롭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냥 좋아요. 서핑할 때는 너무 몰입해서 다른 생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고민도 없어지고 그냥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좋은 이유가 따로 없듯이 바다도 그냥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 단점이 있다면 피부가 탄다는 것인데 그것도 서핑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해요. 게다가 요즘은 좋은 선크림이 많아서 큰 걱정거리도 아니고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정도 전국대회 1등을 휩쓸며 서핑 선수

로 활약하던 미희 씨는 2009년에 갑작스런 은퇴를 선언했다. 체력도, 의지도, 모두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한창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서핑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이 서핑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그녀는 스스로 정상외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상대적으로 서핑을 늦게 시작한 편이라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짧았어도 제가 서핑을 하면서 보낸 시간의 밀도는 다르거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물속에 있다시피 했으니깐요. 그래서 은퇴한 것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예전에는 가끔 제대로 된 파도를 타면서 몸을 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높은 파도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보다 아이들과 직원들이 먼저 생각이 나죠.”

선수로 활동하기 전에도 교육자의 역할을 해왔던 그녀였지만 2012년 자신의 교육장을 공식적으로 ‘송정서핑학교’라 이름 지으면서 그녀는 서핑을 전담으로 가르치는 ‘교장선생님’이 되었다. 그녀는 서핑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서핑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저는 지금도 인재에 계속 굶주려 있는 상태예요.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있으면 꼭 서퍼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학생들이예요. 1학년부터 졸업하기 전 동아리 때부터 여기 와서 배우고 일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실력을 갖추면 숨을 내서 독립시키기도 하고요.”

1년 365일 바다에 있을 수 있는 구조인력을 늘리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7년 전 미희 씨는 119와 손잡고 수상구조대원을 교육하는 일을 시작했다. 서핑을 하기 위해 겨울에도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에 비해 구조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특히 서프보드를 이용해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활동인 ‘서프 레스큐’를 송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올해부터는 송정서핑학교를 통해 사설 해양구조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다.

“바다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지역의 바다를 배우는 데만도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해경시스템으로는 바다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적어도 5~10년은 있어야 데이터가 쌓이고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지속적인 전수가 가능한데, 1~2년 있다 가버리니 본인들도 의욕이 안 생기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것이죠. 조금 가르칠 만하면 가버리다 보니 교육도 연결되지 않고요.”

구조대원이 1년 365일 지속적으로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119에 요청하는 중이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녀는 늘 바다에 있는 자신의 송정서핑학교 직원들에게 서핑 교육 틈틈이 돌아가면서 구조교육을 받게 하여, 실제로 구조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구조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도 만들고자 노력 중이었다. 그녀는 봉사자가 자원봉사 점수를 받아서 구조

대나 전문 요원으로 취업하거나 진학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언젠가 부산시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바다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바다에서 보낸 지난 시간 동안 미희 씨에게 가장 끔찍했던 것은 ‘겨울’이라는 계절이었다. 추운 날씨에 바다를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특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도 없었다. 몸도 마음도 춥고 배고픈 그 계절이면 그녀는 늘 책을 읽었다. 주로 자서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삶의 용기를 얻으면 그 책을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2008년 제주도에 시합을 하러 가는 길에 읽었던 『시크릿』(론다 번저, 2007)이라는 책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시크릿』은 주문 걸기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이었어요. 매일 밤 주문을 걸면서 잠들면 몸속에서 에너지가 흐르다가 다음 날 모든 행동으로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치 제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일 제 자신에게 주문을 의우고 마법을 걸어요. ‘나는 최고다.’라고 하면서요.”

그녀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중에 하나는 ‘바다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어린 시절 노는 것에 싫증이 날 정도로 자연 속에서 뛰놀며

자란 그녀는 공부에 치여 사는 요즘의 아이들을 보며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녀가 구상하는 바다 학교의 과목은 서핑뿐만 아니라 게 잡기, 낚시, 조류와 기후 놀이 등 바다의 모든 것을 느끼고 배우고 또 놀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가득했다.

“세계적인 서퍼 중에 ‘듀크 카하나모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이면서 서핑을 자리 잡게 만든 장본인이예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듀크 포인트’ 지역이 있고, 그곳에는 서퍼들을 위해 큰 기여를 한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을 보면서 저도 듀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지역과 서퍼들에게 좀 더 좋은 여건과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구체적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해요.”

교육분야



02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인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사진작가

이름 없는 학교를 통해 희망의 씨앗을 나누다



이름 없는 학교 운영자

송재한

- **누구의 이야기?** 이름 없는 학교를 운영하며 나눔 약속 활동을 하는 사진작가

- **하는 일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사정이 안 좋거나, 혹은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취업 교육을 하는 이름 없는 학교의 교장

- **꿈을 이룬 과정** 전주대 영화학과 창단 학번으로 졸업→영화 현장에서7~8년 일함→전주로 돌아와 지역 방송국에서 MD로 일하게 됨→일을 그만둔 뒤 태평동에 카페를 차리고 아이들의 취업 교육을 시작→시내로 자리를 옮겨 포토카페의 규모를 키워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남→무료 사진 나눔을 통한 나눔 약속 활동과 전국 각지의 <이름 없는 학교>를 운영 중

- **장래 포부** 무료 사진 나눔, 이름 없는 학교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 **그의 한마디** 겁먹지 말고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라. 단 그 뒤의 책임은 스스로 저야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tvN 리틀빅히어로 25회-약속 청년 송재한 <https://youtu.be/RdFYbJM77NU>

송재한

이름 없는 학교 운영자



전주의 한옥마을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료 사진 나눔(Free Photo 나눔)이라는 피켓을 든 청년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고, 그 대가로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다. 그가 바로 <이름 없는 학교>의 교장이자 사진작가 송재한 씨다. <이름 없는 학교>는 국가에서 인증 받은 정규 교육기관도, 비인증 사립 교육 시설도 아니다. 그저 조금은 특별한 학생들이 모여 이루어진 학교이자 놀이터이자 카페이자 집이다.

<이름 없는 학교>는 현실적인 한계 탓에 자신의 꿈을 이뤄 나가는 것을 포기해 버린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실질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전주의 이름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대략 30~40명 정도인데 전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지

에 분교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없지만 밴드를 만들어서 지역마다 선생님을 뽑아서 운영을 한다. 지금 이름 없는 학교의 선생님 중에는 학교 선생님, 사업가, 백수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다. 그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로 뽑는다고 말한다. <이름 없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형’이 되어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송재한 씨를 만났다.

소심한 소년, 영화감독을 꿈꾸다.

“어린 시절 저는 김치 공장 사업으로 바쁜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외할머니는 단 둘이 식사를 하더라도 술 한 가득 밥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무언가를 나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죠. 그 때부터 봉사, 희생, 나눔이라는 걸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 자연스레 몸에 배게 되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의 공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유년 시절 재한 씨는 소심한 성격이었다. 그러던 그가 지금과 같은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다. 중학교 1학년, 키가 크다는 이유로 체육부장이 된 그는 아이들 앞에 나서서 체조를 가르치는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렇게 3~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기만 할 정도로 소심했던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가 용기를 낼 때까지 지켜봐 준 선생님과 아버지의 믿음이었다. 그때 그를 지켜봐 준 같은 반 아이들 역시 그에게 있어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다루는 법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CF와 뮤직비디오에 흥미가 생겼다. 전 재산을 털어 산 3만 원짜리 비디오테이프를 다 늘어져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볼 정도로 영상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그는 영화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그의 꿈을 본격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주에 조그마한 디자인 학원이 생긴 것을 알게 된 이후였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비싼 학원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그는 우선 한 달 치 학원비만 내고 무작정 학원을 계속 다녔다.

“그렇게 몇 달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 하고 싶을 때까지 해.’ 원장님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무료로 포토샵, 일러스트, 페이지메이커, 킥 같은 툴과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등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영상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 전주대에 신설된 영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하고 나서는 영화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름 없는 학교〉는 작은 계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재한 씨는 7~8년 동안 영화 현장에서 일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영화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았던 그는 월세를 밀려 주인아주머니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였다. ‘당장 오늘 먹고사는 것’이 최대의 걱정이었던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JTV라는 지역 방송국에 취직하여 MD로 1년 정도를 일했다.

“안정적이고 편한 생활을 하다 보니 영화 일을 하던 시절, 서울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당시 현장에 막내로 오는 학생들의 경우 먹고살기 힘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저는 그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해주기도 하면서 홀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이었죠.”

지금의 〈이름 없는 학교〉의 시작과도 같았던 서울에서의 그 일들이 자꾸만 생각났던 그는 결국 지역 방송국의 일을 그만두고 전주의 외진 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우선 전주의 공구의 거리 끝 천변에 카페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다. 원래 부수기로 되어 있던 한 건물의 세를 얻어 직접 못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카페를 만들었다. 그의 예상대로 카페 주변에 살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 그곳으로

찾아왔다. 당시의 그의 계획은 1년에 한 명만 취업시켜 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카페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커피를 주며 꿈을 물어보고, 어떻게 사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렇게 <이름 없는 학교>의 형체가 생긴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부터 포토카페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커피를 마시면 무료로 사진도 찍어 주고 인화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무료 사진 나눔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름 없는 학교에 대한 입소문이 나다 보니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제게는 더 열심히 벌어서 더 많은 이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다는 도전 정신이 생겼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간을 더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이름 없는 학교>를 시내로 옮겨가 사진 스튜디오에서 제2의 출발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름 없는 학교> 교장이면서 또 사진작가이기도 해요.

재한 씨는 자신의 주업은 나눔 활동과 학교의 운영이고, 스튜디오는 이를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한 부업이라고 말했다. 영화를 전공한 그가 사진을 하게 된 이유는 촬영을 하던 사람이 무언가를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진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인데, 지방에서는 영상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프로덕션을 해서는 먹고살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는 스튜디오와 카페를 차리기 위해 지역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

원금 2천만 원을 받아 스튜디오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사진을 정보 전달에 대한 것과 감정 전달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경계를 허물려고 노력하고, 그걸 허무는 게 좋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요. 정보 전달을 하려고 어떤 사진을 찍어도 그 사진 속에는 인물의 표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인물사진을 찍어도 풍경사진을 찍어도 좋은 사진을 찍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죠. 사진이나 영상이 참 좋은 게, 정답이 없는 예술이잖아요. 누가 함부로 답을 내릴 수도 없고요. 사진은 카메라라는 기계가 무언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사진교육 하고 왔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찍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그 기준을 타인에게 맞추지 말라고요. 또 네가 보여주고 평가를 듣는 건 좋지만, ‘오, 잘 찍었네.’라는 표현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같은 사진을 두고도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감동을 받아서 생활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진이 좋아요.”

이름 없는 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그만큼 절박해요.

재한 씨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난밤 사이에 아이들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에게 메시지를 보

내오는 사람들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또래의 중년 여성도 있고, 부자들도 많았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그에게 연락해 오는 사람들은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는 처음에 SNS를 통해 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정신과 전문의나, 학교 선생님, 사회 복지사들을 통해 학생들을 소개받기도 했다. 이 경우는 보통 제도권 안에서의 도움이 불가능한 경우라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었다. <이름 없는 학교>는 외부 지원도 받지 않고 실적을 낼 필요도 없는 곳이기에 그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사진을 배우고 싶어 찾아온 한 학생의 일화를 소개했다.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카메라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먼저 보라고 했더니, 이거 고장 나면 고쳐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대신에 정 사진을 배우고 싶으면 나중에 형 스튜디오로 와라, 절대 선생님이 아니에요. 형이라고 해요. 개한테 편해야 하니까요. 나중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동안, 옆에 카메라를 놔두고 얘기하는 내내 그 친구의 눈이 카메라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애가 바들바들 떨면서 카메라를 잡았어요. 그 뒤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이 아이가 단 2주 만에 카메라를 마스터한 것이죠. 보통 6개월을 가르쳐도 못하는 걸 2주 만에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전주의 남부시장에서 열리는 주말 야시장에 ‘이름 없는 사진관’이라는 걸 열어줬어요. 시장바닥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걸 열어주고, 사진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의 50프로는 네가 가져가라고 했죠. 그렇게 6개월을

가르쳤고, 지금은 서울 청담동 스튜디오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1년 정도 됐죠.”

그는 그 친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진을 배우며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절박했기 때문일 거라고 했다.

“사람은 ‘나는 이걸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초인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재한 씨의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 사진 나눔을 통한 나눔 약속 활동이나, <이름 없는 학교>와 같은 활동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사진이 아닌 자동차를 배워보고 싶다고 했다. 지금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직업은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으로 바꾸어 보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동네의 카센터에서 무급으로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과 어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표면으로 꺼내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학교

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나는 꿈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저랑 한 달만 있어보면 자신의 꿈에 대해 다 이야기해요. 그 역할을 지금의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나는 아이언맨이 되겠다’고 하면 미쳤다고 비웃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대단한 꿈을 가진 거예요. 그가 과학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최소한 장난감이나 로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직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 하다면 망토라도 달아주고, 빨간 망토에 줄바지라도 입으면 저는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날지 못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어설피어도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이런 말을 전했다.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세상에 기죽거나 겁먹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요. 대신 그 뒤에 따라올 책임도 스스로 지라고요. 책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지려면 자신이 선택해야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부모가 대신 저주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라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요즘 부모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방법을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르치면 좋겠어요.”

교육분야



03

소수 약자로서의 경험을 딛고 교육 불평등을 없애려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 힘껏 점프하다



점프 대표

이의헌

- **누구의 이야기?** 소수 약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

- **하는 일은?** 다문화를 비롯한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 <점프> 운영 중

- **꿈을 이룬 과정** 대원외고 진학→고려대 신방과 진학→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8년간 근무→하버드 케네디 스쿨(공공정책 대학원) 진학→소셜벤처 <점프> 설립→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선정

- **장래 포부** 다문화, 노인 문제 등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다양한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 **그의 한마디** 한국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 **더 알고 싶다면** 사단법인 JUMP 홈페이지 <http://jumpsp.org/>

이의현

점프 대표



저소득층 및 이주 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청년 인재를 양성하여 나눔과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점프>*는 2011년 5월 한국의 불평등한 교육 환경에 문제의식을 느낀 하버드 대학원 6명의 유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점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된 청소년 계층 점퍼(Jumper), 대학생 자원봉사자 장학생(장학생+선생님의 '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직 멘토(Mentor)라는 삼각 축이다. 장학생 교사는 점퍼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고, 멘토들은 장학생 교사들에게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멘토링을 제공해 준다.

* 'Join Us to Maximize our Potential'의 약자. 현실에 위축되거나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꿈과 목표를 향해 '점프'하여 잠재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라는 의미

대학생 1명당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교육 지원을 받고, 사회인 멘토 약 200명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기수당 약 50~15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시스템에서 2015년 11월 현재 7기가 활동 중이다. 소수자, 약자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프>의 대표이자 이사장인 이의현 씨를 만났다.

학창 시절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우연히 학습지에서 본 외국인과 예쁜 여학생, 멋진 남학생들이 즐겁게 찍혀 있는 외고 홍보 사진은 의현 씨를 대원외고에 진학하게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단순히 그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으로 진학한 외고에서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방송반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잘 놀고. 그냥 즐겁고 특별할 것 없는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냥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교 좋은 과에 가야 한다는 부모님의 목표에 따르는 아이였죠.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가게 된 계기도 중학교 때와 비슷해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공간적 배경이 고대였어요. 거기 가면 그런 예쁜 누나들과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친구들도 고대를 많이 지원했고요.”

진로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진학한 고려대학교에서도 그는 선후배 사

이의 연대가 깊은 학교 문화에 취해 평범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신방과에 가서는 당연히 기자나 피디 혹은 홍보 쪽의 일을 하게 되리라 생각했던 그는 언론고시를 준비하다 미주 한국일보의 공채에 합격했다.

“그때는 신문사가 방송국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미주 한국일보는 한국일보 계열사였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공채 모집을 했죠. 처음 제 계획은 기자든 피디든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공부를 한 뒤에 돌아와 기자 생활을 하거나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겠단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미국에서의 기자 생활은 한국 사회에선 지극히 평범했던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서 저는 소수의 이민 노동자였죠.

“한국 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만났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완전 밑바닥이 된 것이죠. 미주 한국일보가 한국일보 계열사라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 중국 동포들이 만드는 중국 동포 신문이 있다고 해요. 거기 기자가 연변 말투로 서울시장을 만나서 인터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미국에서 일하면서 세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는 했죠.”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는 스물여덟부터 서른여섯까지 8년간 미국에

서 기자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세상을 경험했다. 이민노동 비자를 받았던 의헌 씨는 미국에선 소수의 이민 노동자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서 대놓고 차별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한 상황에 처하고 미약한 지위에 있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걸 더 많이 느낀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제 인생에서 좋은 영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 기자 생활은 지금의 사고체계를 구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비영리 단체 쪽의 취재를 많이 했던 그는 한국에서의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한 한국 국적 탈북자들, 눈앞에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흑인들 같은 약자들을 주로 만나며 사회 구조의 불평 등함을 몸소 체험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민자,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취재, 기록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해 해결하는 참여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기사를 그만두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느낀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어
공공정책 대학원에 진학했죠.**

기자 생활을 그만둔 뒤 의헌 씨는, 처음엔 국제기구에 들어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공공 정책 대학원)에 진학

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며 그가 깨달은 것은 국제기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조직의 특성상 문제 해결에 직접 투입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학원 졸업 후 국제기구에 들어가겠다는 목표 대신 그는 마음이 맞던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할 새로운 일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했다.

“공공정책 대학원이니까 논문이 클라이언트가 있는 정책보고서로 진행이 돼요. 저의 클라이언트는 경기도 교육청이었고, 거기의 다문화 학생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지금의 <점프>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사실 한국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인맥을 쌓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정부에서 모집한 다문화 관련 특차에도 지원하고 기업의 전략팀이나 컨설팅 회사에도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점프>를 시작한 것이었죠. 미국에서의 기자 경력은 한국 사회에서의 커리어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도움이 안 되었어요.”

그는 우여곡절 끝에 2011년 5월 고용노동부에서 모집한 사회적 기업이 육성 사업 프로그램에 신청해 선정이 되었고,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6명이 함께 이사로 참여해 소셜벤처 <점프>를 창립했다.

정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교육 영역을 메워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다문화 계층의 청소년이나 취약 계

층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장학생 선생님이란 의미의 ‘장학생’ 대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해 지역아동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학교 등에 파견하는 시스템이었다. 1년 동안 일주일에 8시간 정도 주 2~3회 씩 ‘장학생’이 센터로 가서 청소년을 만나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장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대신 현대자동차 기업이나 서울장학재단과 연계된 장학금과 대학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취약 계층/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는 한국 사회에 무사 연착륙할 수 있는 교육과정서 안정의 기회를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학교 졸업 후 사회 진입에 대해 멘토링을 통해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정답 없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았어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이쪽엔 한 명이 있고 저쪽엔 여러 명이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대학원에도 그런 수업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많지도 않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의사 결정권자가 될수록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은 지식에 의존한 결정이 아니라 그가 가진 철학, 세계관, 인생관에 의해 결정돼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점프>의 ‘장학생’들은 좋은 거죠. 직접 몸으로 부딪혀 1년 동안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으니까.”

그는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 영역이 공공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게끔 정부가 지금 못하는 일을 자신들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점프>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잘

성장해 다시 자신의 커뮤니티로 돌아와 그곳을 대변하고,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아이가 커서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수 약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평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배움과 나눔을 통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다양성 문제에 좀 더 민감한 사람으로 키워가고 싶어요.

〈점프〉의 대표로서 그의 목표는 〈점프〉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점프〉를 잘 이끌어 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이미 이사회에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의현 씨는 자신이 다시 청소년이 된다면 신문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고 했다.

“신문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기에 가장 좋은 텍스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은 안 할 거 같아요. 게임은 무용(無用)하다기보다는 마약같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중독이 되면 다른 것들을 할 기회를 놓치니 무서운 거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시기에 정서적으로 단절이 되니까요.”

소수자, 이민 노동자, 다문화 약자의 입장을 경험했던 그는 다문화에 무관심한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저는 두 가지 일을 병행 중이에요. 하나는 밥벌이로 미국의 IT 기업 <서베이 몽키>*의 한국 매니저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실현을 위한 <점프>를 운영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병행한다든지, 인생에서 이직이나 전직같은 점프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요. 점점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될수록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죠. 한국에 있는 무국적자 아이들,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 등 문제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거의 정책적으로 방치된 수준이에요. 다문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심각하고요. 다문화와 지금 사회의 거리를 좁히고 충격을 줄이는 일, <점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예요. 저희는 분리교육을 지양합니다. 다문화가 사회에서 따로 분리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그런 다양성 문제에 좀 더 민감한 사람으로 키워가고 싶어요.”

*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설문조사를 만들어 이메일, 문자로 보내고, 응답이 오면 분석하는 솔루션.

04

가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꿈꾸는 교육홍보활동가

사람이 가진 저마다의 지혜를 나누는 세상을 만들다



제주의 소리 경영기획실 팀장

오연주

- **누구의 이야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렇게 배운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육, 홍보활동가

- **하는 일은?** 제주의 지역 언론사인 <제주의 소리>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제주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가족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나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제주에서 꿈 많은 학창 시절을 보냄 →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면서 처음 제주도를 벗어남 → 대학에서 고고미술학과 행정학을 전공함 → 대학원 진학과 취업의 두 갈래에서 고민함 → <CJ 푸드빌>에 취업 →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로 내려와 지역 언론사 <제주의 소리>에 취업 →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다수의 교육 사업을 진행 중

- **장래 포부** 계속 꿈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 **그의 한마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자.

- **더 알고 싶다면** ocarrie@jeusori.net

오연주

제주의 소리 경영기획실 팀장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그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지역 언론사들이 존재한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언론사는 <제주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이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사들이 광고수익이나,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기획기사를 통한 수익으로 언론사를 유지해 나간다면, 지역 인터넷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수라는 15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다른 지역 언론사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인다. 회사에 소속된 기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필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사를 올리는, 쉽게 말해 <오마이뉴스>의 지역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제주의 소리>는 제주의 지역 언론사 중 방문자 수가 가장 많으며, 이 수치는 전국에서도 10위 안에 든다.

〈제주의 소리〉는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가치를 두고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얻어지는 수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경영기획실의 팀장이 바로 오연주 씨다. 그녀가 굴지의 대기업을 그만두고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지역의 작은 회사의 직원이 된 이유는, 제주의 정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이 일이 재미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제주에서의 새 출발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그녀 오연주 씨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 수많은 직업을 꿈꾸다.

연주 씨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을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남달랐던 그녀는 무언가 궁금한 일이 생기면 일단 시도를 해보곤 했는데, 그렇게 매사에 호기심과 흥미가 넘치던 그녀가 가장 즐겁게 했던 일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홍사단’이라는 동아리 활동이었다. 연합동아리였던 그곳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를 하곤 했는데 그녀는 그 활동을 통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요즘 대학생들을 만나면 다들 ‘전 꿈이 없어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학생 때에는 국제회의기획자, 선생님, 파티 플래너, 통역사, 변호사 등 별의별 게 다

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어떤 직업에 대해서 배워요, 그럼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직업을 미래에 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방법을 알아본다거나 공부를 더 하는 등의 노력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소통하고 그 일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하는 일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었던 발랄한 그녀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생활하게 되었다. 그녀의 전공은 고고미술사와 행정학이었지만 적성에 맞는 학문은 행정학이었다. 행정학은 법, 정치, 역사, 사회심리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 배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융합학문의 성격으로 그것이 그녀의 호기심 많은 성향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저는 사람을 좋아해서 나중에 일을 하더라도 사람과 만나는 일을 해야 내 스스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의 길목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우선 사회경험을 쌓고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

제주로 돌아와 인생의 2막을 열다.

연주 씨의 첫 직장은 <CJ 푸드빌>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매장 서비스 관리와 교육 같은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처음에 고객대응이나 매장관리, 매출관리를 하는 모든 일이 즐거웠지만 그녀는 점차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일방적인 전달자 역할을 하며 주어진 일만 하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다.

“첫 직장이 첫 사회생활이었기에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해 각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하는 말이 꼭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앞으로 마주할 사회생활의 예행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못 거쳤기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녀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제주로 다시 내려오게 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의 이동이 좌절되면서였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 전화를 했더니, ‘회사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는 너의 판단이다. 하지만 네가 무엇을 하든 갈 곳을 정해 놓고 가라.’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될 것인지 이직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차가웠던 사회생활보다는 대학원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 뚜렷한 목표 없이 현실 도피성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자고 결심을 했는데,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것이 제 기본 모토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서울 아님 제주다.’ 하고 일자리를 찾아보니 <제주의 소리>가 딱 있었죠. 그 길로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제주에서 일하고자 마음먹게 된 것 역시 ‘홍보 업무와 사업기획 업무’에 대한 그녀의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 뉴미디어팀에서 일을 하며 회사의 다양한 사업들을 접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지자, 그녀는 더 나아가 자신이 계획하고 있던 교육 사업이나 강연프로그램을 회사에 제안하게 되었고,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일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메인 콘텐츠로 삼은 이유가 교육을 통해 가치관을 전달하고 전달된 가치관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사회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하면 참 재미있겠다 싶었어요.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나침반 교실’과 제주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훈련’ 수업이 있어요. ‘나침반 교실’은 아이들한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가 되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어요. 내용은 사교육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서, 부모가 아이의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길잡이가 되자는 것이에요. ‘리더십 훈련’은 13일일의 강의 동안 13개 직업을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예술이나 창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일일 강사로 초빙해서 대학생들과 만나게 해 주는 수업이에요.”

교육홍보활동가로의 삶을 결심하게 되다.

연주 씨는 제주로 내려와 지금의 직업을 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하는 일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았다.

“처음에는 홍보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는 관광 쪽 기사를 썼는데, 경영기획실에 결원이 생긴 거예요. 그전부터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단 얘기를 많이 비쳤고, 기존에도 이곳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 관련 업무를 저한테 조금씩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해보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업무가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기획실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을 하게 되었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 큰 재미를 느낀 그녀는 단순히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배움을 얻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해보기도 했다. 그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부모 아카데미의 일이 가장 재미있고 애착이 간다고 했다.

“제 친한 친구가 시외 인문계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친구 말이 가족공동체 의식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봐야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짜볼까 계속 고민하다가 회사에 건의를 했죠. 그렇게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특히 가족공동체라는 화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가르친다면, 사회에서는 부모들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부모로 살아가는 성인들 역시 부모를 배워본 적이 없기에 배울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저는 가족공동체가 살아야 자녀의 미래, 나아가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모 아카데미에는 주로 어머님들이 오세요. 저는 아버님들도 오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부모학교를 통해 육아를 배워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 학습보다는 공동체 회복에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아이들을 대할 때의 감정 조절 방법이나, 대화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 조정 등의 부모 관계부터 가르쳐요.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관심을 주자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렇게 가족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연주 씨는 앞으로 4~50대들이 가진 연륜과 재능을 모아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간단히는 주부들에게서 살림의 방법을 배우거나, 동네 세탁소 사장님을 초빙해 세탁을 잘하는 방법을 나누는 식이다.

“저는 계속 꿈을 찾으면서 살고 싶어요. 여전히 주변의 상황에 관심이 많고 제 내면의 소리에 늘 귀기울여요. 제가 가진 호기심이나, 에너지를 긍정하는 것이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녀는 학창 시절 자신이 글자를 통해 추상적으로만 직업을 알아보려 했던 것이 아쉬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A전공을 전공한다고 해서 꼭 A관련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창 시절에 좀 더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봤으면,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서 좀 더 효율적인 진로 탐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만날 꿈이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꿈을 찾아가고 싶다는 그녀는 살아오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직업이라고 하면 자신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명함이기에 그녀는 어릴 때 딱 들으면 감탄사가 나올 만한 유명한 직업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흐를수록 직업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꾸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좀 더 탐구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에게 있어 그러한 일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녀가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싶은 일이자, 잘하고 싶고, 또 배워보고 싶은 일이었다.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 남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논리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내가 진짜 무얼 하고 싶은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인생의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분야



05

자연과 함께 음식 본질의 맛을 찾아가는 맛 철학자

음식의 가치와 철학을 탐구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조리전공 교수

김현숙

- **누구의 이야기?** 호텔 경영에서 음식 자체로 관심사가 바뀌고, 교육자가 되면서 맛철학가가 된 사람

- **하는 일은?** 음식에 대한 본질, 문화인류학적인 가치와 철학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미각 교육, 대학 수업, 슬로푸드 동아리를 지도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이화여대 문리대(불어불문학 전공) 졸업 → 스위스로 유학을 떠나 글리옹 호텔관광경영 대학에서 3년간 공부 → 졸업 후 스위스그랜드호텔(현 힐튼그랜드호텔) 오픈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객실부 차장으로 근무 → 일본의 ADF초치 아카데미에서 6년 동안 디렉터로 근무 →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조리 전공 교수로 재직 중

- **장래 포부** 모든 사람들이 음식의 가치를 깨닫는 미각 교육, 음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직업윤리, 음식에 대한 철학을 가지도록 하는 '음식교육자'

- **그의 한마디** 자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요리사는 그저 기능사에 불과하다.

- **더 알고 싶다면** 청강문화산업대 푸드스쿨 카페 <http://food,ck,ac.kr/>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홈페이지 <http://slowfoodkorea.tistory.com/>

김현숙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 조리전공 교수



음식과 약은 같은 뿌리라는 뜻의 ‘약식동원(藥食同源)’이라는 말이 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서양 의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말도 있다. 이 두 가지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부터 사람들은 단지 음식의 맛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이다.

요리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미슐랭 가이드’에서 가장 많은 별을 받은 알랭 듀카스는 자신의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요리사이자, 음식의 뿌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음식철학자이기도 하다. 알랭 듀카스가 “나는 요리를 하기에 앞서 자연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한 이유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란

식재료이며, 어떤 조리법으로,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가 곧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김현숙 씨 역시 음식의 본질과 문화인류학적인 가치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알랭 듀카스와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같지만 그녀는 요리사가 아닌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가 자신을 ‘음식인문학자’가 아닌 ‘맛철학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짜 요리사가 된다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하는 맛철학자 김현숙 씨를 만났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이과생이었지만 사실 문과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현숙 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할머니는 시골에서 약국을 하셨고, 고모 역시 약사로 일하고 계셨다. 그녀는 주위 어른들로부터 약사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그녀 역시 약사를 하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녀는 약대에 들어갈 생각으로 이과를 선택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수학, 물리와 같은 이과 과목보다 영어나 역사와 같은 문과 과목에 흥미를 느꼈다는 데에 있었다. 그녀는 결국 이과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 을 위해 치르는 본고사를 문과 시험으로 봤고, 조금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화여대 문리대 학생이 되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위대한 스승을 만났어요. 이화여대의 교목이시면서 동서철학을 섭렵하신 김홍호 선생님이었죠. 그분의 영향으로 저는 문리대를 다니면서 철학과 심리학, 사회학에 심취했었어요. 어리고 철 없던 그 시절에 ‘벽암록’이라는 선사들의 선문답집을 읽고, 동양사상을 공부하고, 노자(老子) 강의를 들었죠. 그러면서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인문교양 위주로 수업을 들던 그녀는 3학년이 되면서 전공으로 붙어 불문학을 선택했다. 그렇게 대학에서 4년을 보내고 졸업이 눈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취업을 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뒤늦게 영어와 타자를 배우러 학원에 다녔다. 그녀가 스위스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그즈음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던 차에 한국관광공사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사장님이 우리나라 관광업계에도 여성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스위스 유학을 추천해주셨어요. 스위스에 호텔관광경영 교육으로 유명한 명문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죠.”

스위스에서 호텔관광경영 공부를 하고, 처음으로 사회생활도 하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1년 동안 어학 공부를 한 후에 현숙 씨는 스위스로 넘어가 <글리옹 호텔관광경영대학>에 들어갔다. 여학생도 동양인도 찾을

수 없는 그 대학에서 그녀는 ‘경영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호텔관광경영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조리, 서비스, 와인을 비롯해 마케팅, 회계 그리고 자세와 매너에 이르기까지 호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제 첫 사회생활은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어요. 대학에 다니며 3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현장실습을 했는데, 실제 호텔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 나중에 일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직접 체험해봐야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글리옹 호텔관광경영대학에서 보낸 3년이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녀가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88올림픽으로 인해 호텔 붐이 일어났다. 스위스가 호텔관광경영 교육으로 유명하다 보니 졸업하기도 전에 인재를 찾으려는 호텔 체인 본부의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그 속에서 그녀 역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하얏트호텔 본사에서는 그녀에게 시카고에서 1년 동안 매니지먼트 트레이닝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고, 이후 신라호텔의 총지배인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스위스호텔 체인에서 오픈 프로젝트 팀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국내 호텔의 제안을 뒤로 하고 글리옹 호텔관광경영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지금은 힐튼그랜드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스위스그랜드호텔 오픈 팀에 합류했다.

“한국 사람으로는 제가 최초였는데, 그때 제 나이가 스물여섯이었어요. 호텔 오픈이라는 것은 건축부터 시작해서 엔지니어링, 구매, 인사,

홍보 등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저는 팀의 코디네이터로 1년 동안 일을 했고, 오픈을 하고 나서는 객실관리부 차장이 되었죠. 대학에서 저를 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일하며 경영보다는 레스토랑과 음식문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외국어 능력이 자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 현숙 씨가 스위스에서 프랑스어, 영어에 이어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던 때였다.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일본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가던 그때 그녀는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그룹이 일본에 진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랭 듀카스 그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요리사이자, ‘미슐랭 가이드’라는 요리사들의 순위를 매기는 곳에서 가장 많은 별을 받은 알랭 듀카스가 세운 기업이었다. 그녀는 알랭 듀카스 그룹에 지원했다. 그리고 2006년 일본 현지 법인에 취업하게 되면서 그녀는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알랭 듀카스 그룹의 파트너가 <츠지>라는 일본의 조리사 전문 교육기관이었는데, 조인트벤처로 <ADF츠지>라는 아카데미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곳의 디렉터로 6년 동안 일을 하며,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직원들 교육하는 레스토랑 컨설팅을 했죠. 그 과정에서 푸드 트렌드

와 외식산업 전망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레스토랑과 음식문화 쪽으로 제 관심이 기울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호텔관광경영대학을 다닐 때도 식음료 마케팅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계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푸드스쿨에 합류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 청강대에서는 문화산업을 특성화한다는 모토로 젊은 인재 양성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스쿨제’를 도입했고,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일본과 유럽의 음식문화와 음식교육기관의 특징을 우리나라 시스템에 접목시켜 보자는 포부를 가지고 진정한 푸드산업의 프로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만드는 기회에 동참하게 되었다.

“푸드스쿨은 조리, 푸드스타일, 식품영양, 외식경영 이렇게 4개 전공이 모여 있는 하나의 학부 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조리 전공 소속 교수인데, 식품조리과학이나 식품영양 쪽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유레나 인문학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의미인지 등을 토대로 음식에 스토리를 담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활동하며 저는 ‘맛철학자’가 되었어요.

현숙 씨가 자신의 직업을 음식인문학자나 맛칼럼니스트가 아닌 ‘맛철학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녀가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학

생들이 산업 분야에서 일할 때 자신이 다루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자신은 어떤 철학으로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직업철학을 가지고 임하기를 바랐다. 그런 마음에서 그녀가 청강대 학생들과 함께 만든 것이 바로 슬로푸드(slowfood) 동아리였다.

“청강대 슬로푸드 동아리는 현재 국제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미각 교육’에 관한 것이죠. 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일명 ‘떡방’, ‘쿡방’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신이 직접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 깨어있어야 하거든요. 내 몸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주자는 것이 바로 미각 교육의 취지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건강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보자는 것이죠.”

그녀는 청소년들이 과잉행동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또 정서불안 상태에 놓이는 원인이 음식에 있다고 생각했다. 단맛을 내는 음식이 많아지고, 채식보다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소비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음식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역시 음식이 건강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

재료를 생산하는 농부들을 존중하고요. 음식의 뿌리는 건강한 자연에 있으니까요. 자연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요리사는 그저 기능사에 불과해요. 진짜 요리사는 된다는 것은 의사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직업의식, 직업철학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교육목표이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맛의 방주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과 농가에 방문했었어요.

현숙 씨는 올해 청강대 푸드스쿨에 ‘맛의 방주 원정대’라는 교양수업을 열었다. ‘맛의 방주’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통음식과 토종종자, 식문화 보전 프로젝트로 199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32개 정도의 지역에서 토종종자를 발굴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맛의 방주 프로젝트의 뜻에 공감한 그녀는 자신의 수강생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6월에는 전라남도 장흥, 7월에는 경기도 파주의 농가를 방문했다.

“장흥에 ‘돈차’라고 녹차를 발효한 차가 있거든요. 돈차의 역사는 천년이 넘어요. 돈차 농가를 찾아가 학생들이 직접 찻잎도 따보고, 차를 빚어보기도 하고, 명인을 만나기도 했죠. 또 파주에서는 ‘고대미’라는 토종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갔어요. 그곳에서도 눈에 들어가 피를 뽑는 것과 같은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토종종자에 대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어요.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연농법으로 생산을 하거나 토종종자를 지켜나가고 있는 농가를 찾아다니고 싶어요.”

그녀는 우리나라 대학의 조리학과가 대부분 음식의 본질을 자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보다 기능사, 조리사를 양성하고 또 취업을 시키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더불어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연이 더 이상 자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본질, 문화인류학적인 가치와 철학을 자각하게끔 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하면서도 그녀가 교육자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학생들이 그러한 음식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청강대 푸드스쿨이 2013년에 생겼으니까, 2016년 2월이면 첫 졸업생이 나와요. 저는 푸드스쿨의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음식문화, 외식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그리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를 바라죠. 제 푸드 비전이 ‘음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푸드스쿨에 한 학년이 300명이니까 10년 후 제가 퇴임할 즈음에는 졸업생이 3,355명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삼오오’예요. 3,355명의 친구들이 전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작은 매장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음식철학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교육분야



06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림 성장 공동체를 만든 드림 컨설턴트

꿈꾸는 슈퍼맨, 전 세계의 꿈을 응원하다



히어로스토리 대표

김상수

- **누구의 이야기?**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겪었던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의 꿈 이루기를 도와주는 드림 컨설턴트

- **하는 일은?** 부산에서 자신만의 드림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청춘의 성장 공동체 <히어로스토리>를 운영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진로 상담

- **꿈을 이룬 과정**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진학 → 다수의 대외 활동 및 봉사활동 → 가온누리 봉사단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참여 → 봉사활동 중 느낀 보람으로 <슈퍼맨 스토리> 프로그램 시작 → 사회적 기업 '가온누리'에서 3년간 근무 → 뜻이 통한 동료와 함께 <히어로스토리> 시작

- **장래 포부** 나이가 들어서도 학생들과 함께하며 타인의 꿈을 돕는 것

- **그의 한마디**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히어로스토리> 홈페이지 <http://herostory.co.kr/>
김상수 대표 페이스북 '꿈꾸는 슈퍼맨' <https://www.facebook.com/herostoryceo>

김상수

히어로스토리 대표



부산에서 B급 라이프를 즐기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팟캐스트 ‘듣보잡 불량식품’의 디제이 꿈벙이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청년들의 고민을 서로 토론하는 ‘쌍쌍파티’의 공동 주최자이자 대안학교 진로 상담 교사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갖고 있을 만큼 진행이 특기인 사람이 있다. 서울만큼 활발한 교육과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산에서 수많은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 자칭, 타칭 ‘꿈꾸는 슈퍼맨’이자 꿈을 찾는 청년들의 성장 공동체 〈히어로 스토리〉 대표 김상수 씨의 이야기이다.

꿈을 찾지 못해 방향을 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찾기 위해 사망팔방으로 날아다니며 열정을 전하고 있는 김상수 씨를 만났다.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상수 씨는 고향 거제도에서 조선소에 근무하던 아버지와 많은 봉사 활동을 하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개구쟁이기도 했지만 소심하기도 했던 그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가진 꿈은 건축가였다. 다른 일에선 칭찬을 못 받던 그에게 선생님이 가정 수업시간에 제도 수업으로 그린 원이 기가 막히다는 칭찬을 했던 것이다. 당시 TV 프로그램 ‘리브하우스’*를 즐겨보던 그는 제도를 잘하면 건축 관련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이 건축가가 된다면 후에 자신의 집을 직접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집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다짐했다. 그러나 막연히 유명 건축학과에 진학하려던 그의 계획은 생각보다 낮게 나온 수능 점수 탓에 위기를 맞이하고, 결국 그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입학해 건축공학도로서의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으나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계속 받던 그였지만 그의 관심은 대학 안이 아닌 외부로 쏠려 있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할까? 배우는 것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밖은 어떨까? 기웃거리는 호기심이 강했어요.”

결국 그는 학과 생활을 벗어나 여러 동아리 생활을 하던 중, 가온누리**의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1기에 참여했다. 전국 대학생들과의

* 2000년 MBC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준다는 의도로 제작된 방송.

** (주)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 사회적 기업으로서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업

만남과 토론은 그에게 자극이 되어 그는 가온누리 봉사단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1기에 참여하고 나서 2기에도 참여했을 때,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봤어요. 1기 때는 전문 MC가 왔었는데, 대학생 아카데미니까 대학생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까진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진행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할게.’ 하고 서울에 가서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과정을 들었죠. 잘한다고 난리 났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활동을 위해 상담심리도 배우고, 헌혈을 백 번 이상 해 금장을 받고, 해외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진로를 고민하며 평생교육사 자격증과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수많은 활동 중, 봉사활동을 통해 그는 건축 관련 일을 하겠다는 꿈 대신 정말 보람을 느끼는 꿈을 찾아냈다. 바로 사람들에게 슈퍼맨처럼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실제 건축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배들한테 찾아가서 어떠냐고 물어 보면 다 힘들대요. 단 한 명도 즐겁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건축 일을 직업으로 삼고 남한테 아파트를 지어주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고마워할까?’ 생각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봉사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면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고요.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로서 행복을 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았죠.”

〈히어로스토리〉는 꿈을 찾는 것이 어려웠던 제 경험에서 시작됐어요.

“개인적으로 꿈을 찾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누군가의 꿈을 ‘한 번 해봐, 멋지다.’라며 응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적어도 내 주변엔 없었어요. ‘네가 할 수 있겠어? 힘들 거야.’ 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을 읽다 보면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거기에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가 들으니 이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요.”

그렇게 상수 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슈퍼맨 스토리’를 열기로 했다.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를 했지만 사람들은 많이 오지 않았다.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이 없어진 그는 대학생 때부터 해왔던 활동들을 설명한 채 자리를 마무리했다. 미미한 반응 탓에 1회로 끝을 맺으려던 그에게 같이 일을 해보자며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찾아왔다. 바로 현재 그와 함께 〈히어로스토리〉의 공동 대표로 활동 중인 천호철 씨였다. 처음엔 가온누리 봉사단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 ‘가온누리의 팀장’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사내 벤처***를 제안한 대표의 권유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 위해 그곳을 나왔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세상의 작은 영웅들이 각자 위치에서 꿈을 이뤄 나가는 것을 돕는다는 콘셉트로 2011년 2월 〈히어로스토리〉를 만들었다.

*** 대기업들이 기존 우수인력의 지속적 활용과 이탈 방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기업 내부에 독립된 벤처사업체를 두는 것

저는 전 세계의 꿈을 응원하는 꿈꾸는 슈퍼맨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꿈꾸는 슈퍼맨이라고 소개해요. 도와주는 대상이 없으면 내 꿈을 못 이루는 거죠. <히어로스토리>에서 저는 상상을 하는 쪽이에요. 함께 일하는 호철이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는 역할이죠. 그 친구가 항상 ‘형님이 꿈을 꾸세요. 저는 현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께하는 동료와 함께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꿈을 서로 응원하고 돕는 <히어로스토리>를 운영하며 상수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했다. 학교처럼 학생들을 모아 자신이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을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6개월 과정의 ‘히어로 스쿨’, 꿈에 대한 계획을 정해 한 달 뒤까지 성취하는 드림 플랜과 습관 정하기 등을 10주간의 커리큘럼으로 만든 ‘나비효과’ 프로그램, 꿈을 스티디하는 ‘꿈터디’, 한 달에 한 번씩 편안히 수다 떠는 ‘원데이’ 등 모든 것이 학생들과 함께 놀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에 초점을 둔 것들이었다. 좋은 반응을 얻은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참여 인원이 단 2명에 불과한 프로그램도 있었다.

그중에 ‘히어로 스쿨’의 경우 현재는 인원을 모으지 못해 내년을 기약하는 중이다. 장소 대관비나 대관비로 그때그때 받는 등록비 외에는 부가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 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들이 추구하는

창의성에 압박감을 주어 효율이 떨어질 뿐이란 생각이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였다.

“지금 어디에도 아이들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찾는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문제라 생각하지만, 옆에서 누가 계속 도와줄 순 없기 때문에 누구든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 주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히 엄청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만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때엔 그저 속에 쌓여 있는 고민을 들어 주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누군가가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것이다. 최근 4년간 <히어로스토리>를 거쳐 간 약 200여 명의 청춘들 중에는 어느덧 자신의 꿈을 이룬 이들도 많이 생겼다.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던 친구는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세계 여행이 꿈이었던 친구는 방학 때마다 해외로 떠난다고 했다. 기타 실력이 뛰어나지만 무대에 설 기회가 없던 이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히어로스토리>가 내세운 “자신만의 드림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청춘의 성장 공동체”란 슬로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들이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계획 세우기가 필요해요.

상수 씨의 직업은 <히어로스토리> 대표 이외에도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드림 컨설턴트로 진로 멘토 활동을 하며, 일반 학교에 특

강 진로 수업을 나가기도 하며, 대안학교 온새미학교의 진로교사이기도 했다. 또한 B급 라이프를 즐기는 네 명이서 함께 청년들의 이야기와 부산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 ‘뜯보잡 불량식품’을 운영하는 중이었다. ‘부산의 엉뚱한 사람들’의 줄임말 ‘부영인’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지성인 2분을 모셔서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불량한 토크쇼’ 등은 팟캐스트의 인기 코너였다. 그 외에도 ‘부산사람도서관’과 참여연대 등과 연대해 청년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쌍쌍파티’****의 공동 주최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꿈이 꼭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이 꼭 한 가지일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다양하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한테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다들 직업을 얘기하죠.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등등 말이죠.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꿈들은 본인의 꿈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살고 있어요.”

마냥 꿈만 꾸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획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그는 세운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어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잊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늘 노력한다고 했다. 20년 후에도 학생들

**** 부산의 2030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매달 22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로 국제신문을 통해 부산시에 정책 제안을 한다.

과 함께 수업을 하며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찾아 살고 싶다는 그의 꿈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인생을 웃으며 사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대외적으로는 히어로스토리를 통해 꿈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아직 이런 활동이 미약한 부산에도 이렇게 꿈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요.”

07

11년째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외국인 교육자

영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다



Talk To Me In Korean 대표

선현우

- **누구의 이야기?** 언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8개국 언어를 독학으로 익히며,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외국어의 달인
- **하는 일은?** TV와 라디오 방송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 사이트 'Talk To Me In Korean'을 운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교육부에서 주최한 <전국 고등학생 영어 학력 경시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 수상 → 외국어 특기 보유자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입학 → 불어불문학과로 전공을 바꿈 → 2007년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 시작 → 2008년 다국어 팟캐스트, 커뮤니티 운영 시작 → 2009년 <지나인랭귀지(G9Languages)>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Talk To Me In Korean' 사이트 개설 → 2012년 'EBS 생활영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 → 현재 <지나인랭귀지>를 운영하며, 11년째 한국어 교육자로 활동 중
- **장래 포부** 마흔이 되면 운동 교육에 도전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외국어를 배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더 알고 싶다면** 선현우의 유튜브 채널 <http://youtube.com/ever4one>
'선현우의 외국어 이야기' 블로그 <http://why-be-normal.com>
온라인 한국어 교육 사이트 www.talktomeinkorean.com

선현우

Talk To Me In Korean 대표



인사동 거리를 걷던 선현우 씨는 덩치 큰 흑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흑인 남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그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당황스럽고 두려워 시선조차 돌리지 못하고 서 있던 그에게 흑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한국어 할 줄 안다. 너 때문이다. 고맙다.” 흑인 남자는 그가 만들어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었다. 그의 당황스럽고도 재미있는 이 일화는 두 남자와의 포옹으로 훈훈하게 상황이 마무리되었다.

선현우 씨는 이렇듯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고 인기 좋은 ‘유튜브 스타’이자, ‘한국어 선생님’이다. 세계 각국에서 보내오는 뺨뺨한 한국어 편지를 받을 때면 그 어느 때보다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전 세계에 한국어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올해로 11년째 외국인들에게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TV와 라디오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어를 비롯해 프랑스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총 8개국 언어를 능숙하게 쓸 줄 아는 외국어의 달인이다. 외국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선현우 씨를 만나 언어를 공부하고,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간단한 영어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당혹스러워 공부를 시작했어요.

현우 씨가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인을 만난 것은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그의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원어민 선생님을 모셨는데, 그 선생님과 첫 만남에서 그는 당혹스러움을 느껴야만 했다. 중학교에서 3년 동안 영어를 배웠던 그였지만, ‘굿 애프터눈(good afternoon)’이라는 인사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왜 학교를 다녔던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는 그날부터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일기를 쓰듯이 날마다 한 단어의 영어로 그날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기록했어요. 한 단어 쓰기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슬슬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길게 문장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기록을 ‘셀프모니터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내성적이었던 그의 성격까지도 바꾸어놓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그는 학교로 오는 공문을 통해 각종 영어 경시대회에 대한 정보를 얻어 수업을 빠지고서라도 갈 수 있는 대회라는 대회는 전부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상도 받았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교육부에서 주최한 <전국 고등학생 영어 학력 경시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으면서, 그는 외국어 특기 보유자 전형으로 수능도 보지 않은 채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영어에 충격을 받았던 나이가 27살이 아니라 17살이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결혼과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나이였다면 그만큼 몰입해서 영어를 공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자유로운 학생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대학에 들어가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논하고 시를 분석하는 영문학 수업을 듣던 그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영어에 대한 그의 흥미가 영문학에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전공을 바꾸기로 마음먹은 그에게 허락된 것은 언어학부 내 학과들로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았다. 그중에서 그는 불어불문학 과를 선택하여 전공을 바꾸었다.

취미 삼아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했어요.

영어를 공부하고, 불어를 전공하게 되면서 언어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 현우 씨는 이후 일본어를 배웠다. 3개국 언어를 하게 되니 그만큼 외국인 친구도 많아졌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어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면 모두 그에게 질문을 하며 알려달라고 했다.

“우리는 지인에게 ‘살 빠졌냐’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 외모에 대한 질문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데,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실례가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 밖에도 ‘밥 먹었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가냐’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 했어요.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제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봤지만, 마땅한 곳도 없었고요.”

스무 살 때부터 비보잉을 즐겼던 그는 2007년 유튜브에 비보잉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다.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흥미를 느낀 그는 그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유튜브(youtube)에서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을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렇게 2009년부터 그는 모바일 기기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이트 ‘Talk To Me In Korean’를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강의가 아니어서 초반에는 그저 조금씩 올라가는 조회수를 보며 제가 만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저 혼자 취미 삼아 하던 일이다 보니 바쁠 때면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는데, 두 달쯤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어느 날 ‘아직 살아 있냐고 묻는 코멘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덕분에 보람 있었던 경험이었어요.”

한국어 교육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2012년 그는 방송사 EBS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당시 EBS에서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고서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능숙하게 사용하는 ‘국내파’ 영어강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미 유튜브에 1000개의 교육 영상을 올렸고 팟캐스트 에피소드 역시 500여 개가 있었던 그는 그 자리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그는 ‘EBS 생활영어’라는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했어요.

대학생 시절 현우 씨는 하루에 8~9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다. 당시 그가 상상한 미래의 모습은 회사에서 온종일 일하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녹초가 된 몸으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때 그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를 합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비보잉을 했던 그는 춤이 좋아 한때 춤추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언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제게 좋은 인연이 나타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기꺼이 저와 함께 해준 고마운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취미 정도로 활동하다가 그만두었을지도 모르죠.”

그와 함께 회사를 세운 동료는 그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 감수, 홍보 등 다양한 면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 덕분에 그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는 일을 비롯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그런 기업의 자리를 외면하고 사업을 시작한 그의 뜻을 막아서지는 않으셨지만,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셨다.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당차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며, 부모님은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주셨다.

“언어 교육 시장은 솔직히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도 확실한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면 길거리에서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요. 그때 즈음 되면 단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하는 영어 교육은 줄어들고, 실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언어로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배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죠.

현우 씨의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까지 3개국 언어를 배우고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는 지금 독일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에 이르기까지 8개국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 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에 갔다가 길을 잃어서 ‘익스큐즈 미(excuse me)’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스미마셴(すみません)’이라고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를 배웠어요. 중국어는 중국에서 택시를 뺏는데 한국인인 걸 알아보고 길을 돌아가기에 기사 아저씨에게 따지려고 배웠고요. 항상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때 저만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처럼 외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외국에 직접 나가보는 것 이외에도 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외국어를 배울 이유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언어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기에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8개국 언어를 하면서도 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마음이 있다는 그에게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면서 터득한, 언어를 공부하는 그만의 요령이 있었다. 그는 항상 자신과 연관된 단어를 먼저 외웠고, 단어 하나를 외울 때도 자신만의 의미 있

는 기억을 만들었다.

“몇 년 전 다문화축제에서 인도네시아 부스를 방문했는데, 친절하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알려주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축제장을 벗어나는데 마침 물을 파는 데가 있어서, 물 한 병을 사고 인도네시아 말로 ‘물’을 찾아봤어요. ‘아이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부스로 다시 가서 ‘I brought some 아이르’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 단어를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 관련된 단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을 배우면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일도, 자기개발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현우 씨는 얼마 전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영상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년 치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는, 규모가 크거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업체에서는 하기 어려운 역할을 그가 톡톡히 해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온라인 한국어 교육 방송 사이트 ‘Talk To Me In Korean’을 이용하는 50만 명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저녁이나 밤 시간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개발은 무조건 아

침에 하고 있어요. 운동을 마치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단어 하나를 배우더라도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보다 오늘의 실력이 좀 더 좋아졌고, 또 건강해졌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롤모델이 없다는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을 롤모델로 삼았다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목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영어 교육 일을 즐겁게 하다가, 40대가 되면 운동 교육에 도전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 과반수가 2개국 언어를 하지만 그들이 다 완벽하게 언어를 쓸 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완벽해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언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교육분야



08

놀이를 통해 개인의 가능성을 찾아주고자 하는 경험 연구가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놀이터가 된다



놀공발전소 대표

이승택

- **누구의 이야기?** 놀듯이 공부하고 놀듯이 일하고, 일상의 진지함도 재미와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빅게임 디자이너

- **하는 일은?** 교육이나 문화적인 맥락에서, 디지털 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게임 콘텐츠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 → 롱아일랜드의 한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 전공 → 컴퓨터아트를 전공하기 위해 맨해튼의 대학으로 편입 → 졸업 후 신문사에 웹 기획자로 취업 → 대학원에 진학하여 신문사 일과 병행 → 대학원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남 → 신문사 퇴사 후 5년간 여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함 → 친구와 함께 비디오킴퓨터 회사 창업 → 급성장 이후 변해 가는 회사에 흥미를 잃고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 → 연구를 통해 '게임 테마 학교' 설립에 참여 → 귀국하여 2011년 9월 <놀공발전소> 설립

- **그의 한마디** 노력 금지

- **더 알고 싶다면** <놀공발전소> 홈페이지 <http://www.nolgong.com/>

이승택

놀공발전소 대표



‘게임’과 ‘놀이’는 둘 다 즐거운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피드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게임은 점수와 같이 ‘측정 가능한 결과’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했는데 어제보다 기록이 좋아졌다면 이것은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축구와 같이 경기가 끝나면 승패가 갈리는 스포츠도 마찬가지이다. 빅게임 디자이너 이승택 씨는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보다 발전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경험으로 나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의 ‘빅(BIG)’과, 현실 공간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참여함을 뜻하는 ‘빅(BIG)’을 담은 것이 바로 <놀공발전소>의 ‘빅게임(BIG GAME)’이다. 빅게임으로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경험형 문화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놀공 발전소>의 대표이자 빅게임 디자이너 이승택 씨를 만났다.

원장선생님의 한마디에 저는 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던 저는 숫기가 없어서 운동회 장기자랑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누군가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제게 곤혹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리더로 나서거나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지만요.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 시절 승택 씨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강요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여느 아이들처럼 수능 시험을 치렀고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대입 실패 이후 그는 재수를 하는 대신 유학을 선택했다. 유학은 그에게 있어 도전이기도 했다.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던 영어가 가장 먼저 그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그는 그 정도는 이겨내리라 다짐했다. 그렇게 뚜렷한 주관 없이 유학을 가는 쪽으로 결심을 굳혀 가던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를 오래전부터 봐온 유치원 원장선생님의 한마디였다.

“유학을 간다고 인사드리러 갔는데, 원장선생님께서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제가 되기를 바랐던 꿈들이 전부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전부 어머니의 생각이었죠. 그때 저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장선생님의 그 질문은 여전히 제게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유학을 결심하면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두려워서 그러기가 힘들다면 그럼 그냥 무조건 그것을 선택하지는 거예요. 그 다짐 덕분에 그동안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에 대한 열정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승택 씨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은 뉴욕 주의 롱 아일랜드라는 곳이었다. 그곳의 한 대학에서 그래픽디자인을 공부하던 그는 처음으로 시도해본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좀 더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컴퓨터 아트 전공으로 맨해튼 시내에 있는 대학에 편입했다. 대학을 옮기고 나서 잠시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했지만, 여름방학 때부터는 오롯이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는 정말 컴퓨터의 ‘컴’ 자도 몰랐죠. 컴퓨터가 굉장히 비쌌던 시절이라 컴퓨터도 없었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랩실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문을 닫는데, 8시 반쯤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문 닫을 때 나오곤 했거든요.”

인터넷도 없고, 참고할 만한 책도 많지 않았던 그때 그는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혼자서 컴퓨터를 공부했다. 그러한 노력으로 쌓은 그의 실력은 다른 친구들이 그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볼 정도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내내 성실하게 공부한 그의 노력을 높이 산 교수님은 랩실을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그를 추천해 주셨다. 덕분에 그는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의 반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랩실에서 일하며 그는 컴퓨터 동아리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학과 학생 40명 전원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한 신문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기자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개발자로 들어간 것이었죠. 95년도에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신문사에 웹사이트가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을 가르치는 학과도 많지 않았는데, 그중에 제가 다녔던 학과가 해당되었죠. 게다가 학생들 사이에서 3D의 인기가 좋던 그때 유일하게 저만 멀티미디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웹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였던 그 신문사에서 일할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학교에 부탁했을 때 저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죠.”

멘토를 만나 ‘관계’와 ‘온전한 경험’의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승택 씨는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웹에 올릴지를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기획 일을 하며,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술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기획을 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웠던 그가 생각의 깊이를 키우기 위해 한 선택이었다. 그는 대학원에서 ITP(Interactive Telecommunication Program)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멘토를 만났다. 일도 하고, 수업도 들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결혼을 일찍 했던 터라 빨리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불안해 하던 그에게 그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100% 경험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 재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려면 온전한 경험으로, 걱정하고 제대로 놀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느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임의 힘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회사 일과 대학원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승택 씨는 일하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5년 정도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프리랜서로 몇 군데의 직장을 옮겨 다니던 그는 친구와 함께 PC게임을 만들었다. 그 PC게임은 디자인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창업 경험이 있는 친구와 함께 비디오게임회사를 창업했다. 이후 게임이 팔리면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5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

“종자돈도 있고, 당시 경기도 좋아서 창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경기가 붕괴되었어요. 다행히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을 증명하고 그다음에 받자며 투자를 미뤄서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2001년 9.11 사태가 일어났죠.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재난 지역이라 6개월 동안 사무실에 갈 수가 없었고, 1년 동안 인터넷이 복구가 안 되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건지 고민했었어요. 그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비전을 정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2005년 출시한 게임이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면서 회사는 점점 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다. 그로 인해 회사에 흥미를 잃게 된 그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고, 학교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교육에 관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연구소를 회사 사무실 안에 열었어요. 사무실 안에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뉴욕교육청에서 새로운 게임 테마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것도 공립학교를요.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재단의 후원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죠.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어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는 게임(놀이)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교육적으로 오락 이상의 가치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 이거다!’ 싶었죠.”

놀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고 싶어요.

유학을 떠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해온 승택 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새로운 터전을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고심 끝에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미국에서 처음 경험한 테마 학교와 같은 학교를 한국에 세우기 위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보여줄 생각으로 지인과 함께 2011년 9월 <놀공발전소>의 문을 열었다.

<놀공발전소>는 ‘더블 보텀라인 컴퍼니(double bottom line company)’, 즉 수익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놀공발전소>에서 만드는 모든 콘텐츠는 참여자가 주인공이다.

“게임을 한다는 건 어떤 규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게임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중에 ‘빙 파우스트(Being Faust)’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파우스트 되기’예요. 참가자들이 『파우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인공 파우스트가 되어 악마와 거래를 해보고, 이를 통해 문학을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놀공발전소>가 공들여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바닥 놀이터 프로젝트’이다. 그는 참가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진 놀이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놀이나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을 만든다는 것은 규칙을 만든다는 것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곧 하나의 세계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새로이 만들고 실제 현실에서 ‘이 공간이 나의 공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사회 안에서 허락받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죠. 규칙은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어야 유효한 것이니까요. 요즘 아이들은 협업하면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다양한 놀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감정과 가능성을 느끼게 하고, 놀이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가 삶에 권한을 부여하게끔 돕고 싶어요.”

스스로 가능성을 찾고 다양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요.

승택 씨는 처음부터 뚜렷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해온 건 아니라고 했다.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때그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한 것뿐이라고 한다. 함께 일하는 훌륭한 친구들과 파트너들은 늘 그에게 필수 요소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만드는 사람이고 싶다는 승택 씨.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주변으로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현재 그의 일이자, 앞으로의 목표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세상을 바꾸는 변화는 혁명과 같이 커다란

것에서 오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변화들이 모이면 사회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가오겠죠. 흔히 사회에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다양성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서 개개인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09

사업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회사를 세운 미술교육 전문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상에 즐거움을 그리다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대표

최민준

- **누구의 이야기?** 본인의 저항 기질과 디자인 공부를 토대로 연구소를 만든 미술교육 전문가

- **하는 일은?** 남자아이들에게만 미술교육을 하는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전공 → 여러 번의 사업(창업) 및 실패 → 아동교육에 관심을 갖게 됨 → 미술교육회사에 여러 차례 지원하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탈락 → 남자아이들에게만 미술을 가르치는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창업

- **장래 포부** 남아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선두 주자가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내가 가진 약점은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 **더 알고 싶다면**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http://www.jarada.co.kr/>

최민준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 대표



5세 동갑내기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혹은 여자아이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사뭇 다르다. 이를테면 다양한 색상의 크레파스로 사람, 집, 나무 등을 마음껏 그려내는 여자아이와는 달리 남자아이는 검은 크레파스 하나로 ‘줄라맨’과 같이 도통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그리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사람 그리기와 색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다. 남자아이의 그림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 아이가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이다.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는 6세에서 13세의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미

술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는 미술교육회사이다. “미술은 감성적인 여자아이들이 잘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남자아이들을 위한 맞춤 미술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의 대표 최민준 씨를 만났다.

대학 시절 저는 무슨 일이든 항상 새롭게,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준 씨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자기주도성이 강하고 무언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강한 의지로 인해 일부 교수님들과 갈등을 빚고는 했다. 교수님들 중에는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분들이 계셨고,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은지보다 교수님의 취향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디자인이라는 것에 혁신, 즉 어떤 새로움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새롭게,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학 1학년 때에는 강의실 앞까지 가서 ‘내가 이 수업을 왜 들어야 하는가’로 고민하다가 들어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죠. 전통을 깨야 한다는 생각은 늘 했고, 정의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컸어요. 그렇게 저항을 하며 대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진짜 스승을 만났어요.”

어느 날 그는 평소에 따르던 교수님으로부터 학교 안에서 찾으려 하

지 말고 자료 조사를 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접 자료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도가 더딘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서적을 통해 보고 오라는 교수님의 말에 서점을 향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간 서점에서 별천지를 보았다.

“책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도 많더라고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에 다 읽었어요. 서점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떠먹여주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창작이 아니라 사육이라는 것이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스스로 환경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 주려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해 여름방학을 서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내가 직접 해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책에 빠져 있던 민준 씨가 그중에서도 열심히 읽었던 분야는 ‘자기계발서’였다. 그는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자기계발서의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남은 것은 세 번의 실패 경험뿐이었다. 회의감이 밀려온 그는 직접 자기계발서의 저자들을 찾아가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이미 성공한 위치에 있는 그들이 해주는 말은 그저 격려뿐이었다. 그는 좀 더 현실적인 멘토를 찾아 나섰다. 바로

자신보다 한 걸음 빨랐던 20~30대의 창업 선배들에게 찾아갔는데 그의 생각은 적중했다. 창업 선배들은 자신들이 시작할 당시 받지 못했던 수혜나 어려움에 대해 아낌없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고 구체적인 마케팅 노하우, 영업 전략, 아이템 짜기 등을 배우며 그는 무작정 책을 보고 뛰어들었던 때와는 다른 힘을 기를 수 있었다.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필요해요. 사람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둘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 비판 의식이 있어야 해요. 결국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자신이 살아오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사업 실패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그중에서도 난생 처음 강의를 했던 24살 때의 기억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경험이 되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했던 이야기를 했죠. 대학교 3학년생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5천 원씩 받고서 성공에 대한 유료 강의를 한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닌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그걸 왜 했을까.’ 하고 한 달을 후회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책을 본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해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경험과 배움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를 개원하기 전, 남자아이의 성향을 연구했어요.

여러 사업들을 거친 후 민준 씨가 주목하게 된 것은 자신의 전공과 맞닿아 있는 ‘아동교육’이었다. 그는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그 소외되는 아이들 중 남자아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 미술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리며, 성별에 따라 미술에 대한 접근 방식과 교육자의 반응을 달리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그는 남자아이만을 가르치는 전문 미술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기존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식으로 단정 지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예측 데이터에 맞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비정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비정상에 가까운 아이들은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인 경우가 많고요. 틱 장애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도 비정상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남자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적이고, 시키는 대로가 아닌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남자로서 ‘우리가 비정상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남자아이들이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이 그들에게 맞지 않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린 그는 남자아이들을 모아 교육 방식을 달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는 직접

남자아이 1,000여 명을 관찰하며 그들의 패턴과 성향 등을 연구한 뒤, 2011년 남아전문미술교육회사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남아미술교육전문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자격과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한 달 정도 매일 7~8시간씩 참관을 하며 어려운 실습을 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데, 시험은 필기가 아니라 강의 시험이에요.”

교육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로부터 출발해야 해요.

민준 씨는 미술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미술이 아이한테 맞을까?”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미술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교육자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들어왔을 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 오늘은 이걸 배울 거야!’가 아니라 ‘너는 몇 살이야? 어디서 살아? 어떤 애야?’ 같은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는 <자라다미술연구소>에 아이가 들어오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며 기록을 한다고 했다. 아이와의 대화, 아이가 보인 양상, 관찰하는 것들, 질문의 대답 등을 토대로 아이를 분석하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의 교육 방식이었다.

“아이가 미술을 하기 싫다고 할 때, 지켜보다가 여러 곳을 찢러 보는 거예요. ‘뇌에 어떤 부분을 건드려 줘야 아이가 폭발할까. 이 아이는 자기주도성이 강한가? 아니면 공간지각성이 강한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확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완전한 몰입을 경험해요. ‘완전히 몰입하는 뒤통수’라고 표현하는데 뒤통수를 보면 그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면 저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데, 보람 있는 순간이죠. 반대로 아이와 관계를 형성하며 무언가가 시작되려 할 때, 정작 어머니가 이해를 못하면 아쉽죠.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를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자라날 때는 여러 단계가 필요한데 그걸 무시할 때 속상함을 많이 느끼죠.”

내가 가진 약점은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아동교육을 하는 민준 씨이지만 그는 아직 미혼이라 육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그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약점에 대해 연구를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자라며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던 그는 ‘어머니는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라는 의문과 더불어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남아 전문 미술교육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그는 처음에 아동교육 시장에서 경험을 해보려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다. 그러나 그 어떤 연

락도 받지 못했다. 자신의 이력서를 보기는 한 것인지 확인 전화를 하면 담당자들의 대답은 늘 간단했다. 남자는 뽑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한테 없는 것은 가장 성공하기 좋은 포인트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해요. 아동미술교육 시장에서 남자는 약자예요. 98%가 여자 선생님들인데 지금은 제가 그 미술학원 원장님들 사이에서 강연을 하죠. 그땐 저한테 ‘당신이 남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당신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남자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을 시작한지 어느덧 4년째, <자라다남아미술연구소>는 불과 4년 만에 분원 16개 원, 원생 2,000여 명을 거느린 대형 학원으로 성장했다. 남자아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그는 자신과 같이 아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강조했다.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봤을 때 금방 사랑에 빠져야 해요. 아이들은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빨리 느끼거든요.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해요. 교육은 상대방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심리까지 계속해서 통찰력 있게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집중력이 폭발한다.’ 혹은 ‘나는 여럿이서 협력할 때 일이 잘 되는 편이다.’ 이런 것들은 장, 단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향이잖아요. 그렇기 때

문에 자기 이해를 위해 스스로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공감하는 것, 통찰력과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나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에 대해 계속 파악을 해야 합니다.”

